



안수 집사 임직을 받으며

강민형 신임 안수 집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보스톤 한인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안수 집사로 직분을 받게 된 것
을 감사드립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완성 되었기에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도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만들어져 가는 것이겠지요. 그 자리에 맞는 사람으
로서 열심히 더 잘하라고 말입니다. 제가 오늘 안수집사로 안수를 받는 것은 제가 그 자리에 합당할
만큼 완성된 자격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키실
일이 있고, 하나님 나라와 보스톤 한인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
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제 자신도 직분에 맞는 성도로 만들어져 가겠지요.

지난 5년여의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시카고에서 처음 이곳 보스톤에 오게 되었을 때, 아무것도 정
해 진 것이 없이, 시카고를 무작정 떠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빠른 시간에 다시 직장을 구해야
했습니다. 참으로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새롭게 직장을 얻게 하였고, 이민자로서 힘
들었던 신분문제를 해결했으며,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에게 귀한 둘째 아이까지 선물해 주셨습니
다. 돌이켜 보면 저는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가족들을 위한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
이었습니다. 제가 어떠한 어려움에 있더라도 제가 가야 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으며 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제 가족들의 길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최근에 저희 가족들이 보게 된 성경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King of dreams 라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노래 중에 ‘You know better than I’ 라는 노래가 있는 데,
그 노래의 내용을 알게 되면서 정말로 그 노래 제목이 제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10월호 목차

- ☞ 안수 집사 임직을 받으며
- ☞ 족복합니다
- ☞ 애의 선교회
- ☞ 홍보 위원회
- ☞ 평의 평화 환경 위원회
- ☞ 권사회
- ☞ 국내 선교 위원회
- ☞ 역사 편찬 위원회
- ☞ 웨마의 밤
- ☞ 교인 위원회
- ☞ 상록회
- ☞ 집사회
- ☞ 시내산 동우회
- ☞ 알림
- ☞ 여선교회
- ☞ 구루티기 청년 2부
- ☞ 중고등부
- ☞ SUN FLOWER
- ☞ 새교우 환영회
- ☞ kcb 갤러리

<담임목사 메시지> 축복합니다.

이영길 담임목사

며칠 전 저녁에 캘리포니아에서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한국말이 들려서 “여보세요” 라고 답했더니, 조금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반응이 왔습니다. “누구세요?”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도리어 제가 전화를 건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순간 전화가 혼선이 되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요.” 그제야 “예, 제가 딸네 집에 걸었는데 잘 못된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으면서 순간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전화를 걸었으면 자기가 누군지 말해야지 왜 나에게 ‘누구세요’ 라고 물어 참 웃기는 사람도 많아.”

잡자리에 들기 전, 기도를 하는데 그 분과의 대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순간 저의 모습이 가슴에 새롭게 와 닿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가 대답한 내용이 문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이 저 자신을 새롭게 보게 했습니다. 저의 생각은 한 마디로 맞는 생각이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이 먼저 자기를 밝혀야지요. 저는 그 분을 잘 분석하였고 맞게 분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비슷한 전화가 오면 전화를 끊은 후에 이런 기도를 해야겠다 결단을 했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분석보다는 축복이 앞서야 하지 않을까요?

올해 교회 포어를 ‘감사하는 회중’ 으로 삼았습니다. 감사하는 자들은 이웃을 향하여서 어떤 경우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요?

“축복합니다.”

(Pg 1에서 계속...)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데로 살아왔고, 그래서 지금 가는 이 길이 최선이라고 여겼지만 그것이 곧 나의 교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저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에 처하게 하였고 지난 시간 동안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저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으며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결국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그 분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섰지만, 여전히 저는 하나님과 보스턴 한인 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부족한 사람이며 더 자라가야 할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안수집사로서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 제가 완전한 성도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수집사로 세움을 입는다 해도 힘들 때는 돌아서서 불평을 말할 것이고, 살아가는 걱정을 하며 맘에 차지 않을 때 분을 품기도 하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인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주신 기회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충성된 종으로서 하나님과 보스턴 한인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길 것을 약속 드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기대하며 이 답사를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직 안수 및 임직 예배 (9월 16일)

지난 9월 16일 2부 예배시 제직 안수 및 임직 예배가 있었습니다. 올해 추천받은 2명의 장로님과 8명의 안수집사님께서 안수, 임직 받으셨고, 3명의 권사님께서 임직 받으셨습니다. 안수, 임직 받으신 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2부 예배 후 임직자들을 축하하며 에스더 여성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함께 하였습니다.

신임 장로: 권복태, 안성완
신임 권사: 공경희, 심기선, 전신애
신임 안수 집사: 강민형, 김연희, 김진섭, 김희정, 김향인, 노윤경, 안은신, 전현임



해외 선교위원회

- 보스톤 한인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페루 이승훈 선교사님으로부터 온 선교 소식입니다-

오랜동안 뱀지는 못하나 모든 분들의 평안을 구하는 마음과 더불어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것이 페루, 특별히 비다에페르나 교회를 위한 얼마나 큰 헌신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페루를 위한 기도와 후원에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를 정도입니다.

지난 선교소식과 아래에도 내용을 적었습니다만 비다에페르나 교회에 대한 저의 사역은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도 보스톤한인교회의 지원에 힘입어 비다에페르나교회의 재정후원을 해왔습니다만 제가 사역을 마감한 후, 갑작스런 재정후원이 끊어지게 되면 목회자와 어린이사역이 지속될 수 없기에 3년동안 후원은 지속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관계로 후원하기보다, 비다에페르나교회 소속된 이곳의 페루예수교장로회의 리마시찰회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매달 900솔:약365불(유년주일학교 급식비 지원 250솔-약 96불과 목회자매달생활비지원으로 700솔-약269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아르페미오 전도사님은 택시 기사를 해서라도 재정자립을 모색해 보겠다고 하지만 일단은 목회에 전념토록 권면하면서 가능한 3년 내에 상당한 부분의 재정자립이 되도록 노력해 보도록 격려하였습니다.

늘 주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라오며 이 귀한 동역에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늘 마을:안데스의 산골사람으로...>

지난 번 소식에 말씀드린 대로 소망마을(빈민촌)의 “영원한 삶” 교회(Congregacion “Vida Eterna”)가 선교사의 손을 떠난 것은 주님의 복된 허락이었습니다. 저희에게는 이를 계기로 리마라는 선교와 생활의 환경은 삶의 뒷 페이지가 되었습니다. 이 번의 이주는 양가쉬 주로의 두번째 이사입니다. 양가쉬 주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때면 양가쉬 주에 있었고, 지난 2년동안은 빈민촌 선교를 현지 사역자들에게 이관하기 위하여 리마에 주로 있으면서 막바지 사역치중을 하는 가운데 안데스를 왕복 하였습니다.

현재의 가장 긴급한 기도와 필요는, 그동안 함께 해왔던 말렌틴 전도사님(75세) 내외분과의 작별이 곧 예상되기에 산악선교동역자를 주님께서 만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를 파송한 교회(대한예수교장로회)의 기본 선교지침에 따라, 주로 현지교단 (페루예수교장로회)을 강화하고 협력



사역을 위주로 해 온 결과의 하나인 안데스의 와스카랑장로 교회이지만, 교단에 소속된 현지 목회자의 현저한 부족으로, 이 산악지역까지 목회나 선교를 자원하는 페루현지목회자나 신학생이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의 재 이주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리마의 빈민촌은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한 분들로 이루어진 신앙공동체였지만, 목회자원과 일꾼형성과 지역공동체로서의 역량을 갖춘 교회형성의 결과가 있었기에 저희 손을 떠날 수 있었던 반면에 안데스는 여전히 척박한 마음과 영혼들의 산골이가 험한 지역으로 계속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주님의 사람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야겠지요.

이주 전까지, 페루에서의 남은 시간동안의 선교계획은, 지역 신앙공동체가 형성된 리마 빈민촌을 중심삼고, 안데스사역은 현지동역자들의 손으로 건네어 협력 가운데 이관하여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추진하여 왔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오랜 “사람키우기 및 탐색”과 더불어 “산악선교에의 헌신권면”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현지사역자들 중에서 그 누구도 안데스 행을 결단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리마와 사역계획을 뒤로 하고 안데스로 저희를 밀어 내시는 것을 다시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계획을 넘어서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는 주권은 언제나 주님이심이 저희 마음에 다시 각인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살롬>

저희의 사적인 선교여정으로 보면, 30년전에 우리나라에서, 저의 첫 선교목회지를 670미터의 “청산”이라는 산골짜기에서 시작하도록 저희의 등을 미쳤던 그분께서, “너희 남은 삶의 선교사역을 페루의 6700미터의 백산(눈덮힌 흰산) 산골짜기 아래 동네들에서 끝을 내라” 하시며, 마치 저

희에게 미소지으시며 동의 사인을 하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 부부의 선교와 목회의 시작과 끝이 아마도 산골사람의 삶으로 일관될 듯 합니다.

우리는 ‘사회지배층이나 중산층과 지식인들’을 선교대상으로 삼으면 ‘효율적이고 신속한 결과와 열매’를 얻을 것이라고 전략적 판단을 하게 되고, 사실 대개 옳은 전략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분들 뿐만이 아니라 비효율적으로 여겨지는 ‘무지랭이들’,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 받는 계층’에게까지, 아니 ‘우선하신다’고, ‘눈길을 한번도 거두신 적이 없다’고 저희에게는 계속 말씀하시는군요. 저희는 안테스에 있든지 리마에 있든지, 선교가 마감되든지 계속되든지, “그리스도의 몸”을 활력있게 하는 사역들을 더 모색하고 그 실현장치를 마련하는 노력은 계속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그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제목은 덧붙이며 위의 기도와 더불어 안테스는 현재 5군데의 어린이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맘마뽀뽀, 쇼꾸시, 뽀뽀, 야나미또, 우뚜뽀뽀인데 그 중 우뚜뽀뽀는 현지의 “Iglesia de Dios” 교단교회의 요청으로 협력함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다시 그 교단의 교회로부터 “뿌냥”이라는 마

을의 어린이들도 돌보아주기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현재히 교사가 부족합니다. 복음에서 도태되어있는 이 어린 영혼들을 위한 기도와 소명을 가진 협력사역을 감당할 현지교사들이 필요합니다.

페루와 저희를 늘 기억하여 주시며 기도와 동역을 여전히 아끼지 않으시는 사랑이 저희에게는 늘 분에 넘치고 힘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수고와 사랑을 갚아주시며 그분의 영광의 나라에서 복음의 역사로 기억되고 기록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마음깊은 감사와 더불어 주님의 나라의 충만함을 함께 소망하면서

2012년 9월소식 페루에서 이승훈, 김구영 드립니다.
MOVIMIENTO SOLIDARIO DE CUERPO MISIONAL
" TALLER DE PAZ" (평화일꾼터)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평화를 심어서 정의의 열매를 거두어 들입니다(야고보3:18)

안테스 산맥 와스카람산

홍보위원회

위원장 박신영 장로

홍보 위원회의 각 팀의 활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출판 및 도서 관리팀 (김한나 집사, 배한원 집사, 최정열 집사, 하성권 교우, 신선희 집사, 윤경문 목사)
 - 사순절 묵상집과 한울타리 편집, 그리고 아동도서 관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셨던 배한원 집사님께서 타주로 이주하셨습니다. 그 동안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 신선희 집사님께서 팀에 합류하셔서 편집작업을 함께 하시기로 했습니다.
- 멀티미디어팀 (유승오 집사, 김상기 집사) : 계속해서 유승오 집사와 김상기 집사가 교회 웹사이트에 업데이트하고, 영상기록물을 제작 보관하는 일을 위해 수고 하고 있습니다.
- IT (information technology) 팀 (유승오집사, 이봉욱집사, 정재원집사, 방경남집사, 하대준집사)
 - 방송실 봉사: 계속해서 매주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집사님들께 (1부 - 방경남 집사, 박신혁 교우 ;

- 2부 - 하대준 집사, 이봉욱집사) 깊이 감사드립니다.
 - 사무실 흑백 프린트와 칼라 프린트를 새것으로 교체했습니다.
4. 대외 협력팀 (백승한 집사, 김희수 교우, 윤경문 목사): 여름기간에 특별한 활동은 없었습니다.
5. 예술 전시팀 (준비팀 - 김희정 집사, 배광현/정유미 부부, 신광성 집사, 이정자 집사, 설리 오 교우, 한문수 집사) - 보스톤 한인교회의 ECC 커뮤니티홀에 갤러리를 운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 신광성 화백의 주도로 ECC 커뮤니티 홀, Parlor, 그리고 현관 라운지에 전시를 위한 레일을 설치했습니다. 특별히 수고하신 신광성 화백에게 감사드립니다.
 - 현재 갤러리 운영에 필요한 각종 문서양식을 작성하기위해 여러가지 샘플과 관련사항 등을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예술 전시팀에 함께 하실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정의 평화 환경위원회

위원장 안성완 장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이번 정평환 소식은 참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임 정평환 위원장 이셨고 또, 현재 정평환 고문 이신 김정선 장로님과 기존의 정평환 위원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노력해 오신 ECC (Earth Care Congregation) Certification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우선 “ECC Certification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90년 202차 PCUSA 총회에서 “Restoring

Creation”을 채택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돌보게하신 자연을 회복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으로 “ECC” Certification 을 만들고 관심있는 회중의 참여를 격려했습니다.

ECC certified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 (Worship), 교육 (Education), 시설 (Facility), 대외 활동 (Outreach) 각 분야에서 25점 이상의 point을 획득해야하고 Total point가 100을 넘어야만 합니다.

우리교회에서 한 ECC certification을 위해 실시한 활동을 소개합니다.

예배 (29 Pointes)

당회장	Event	Point x Count	Total
당회서기	April 22, 2012 환경주일 예배	5 x 1	5
	이영길 목사 - 10.2.2011(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정연락 목사 - 1.8.2012(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 이영길 목사 - 4.22.2012(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윤경문 목사 - 8.12.2012(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5 x 4	20
Earth Care Art Work	Earth day Brook Mark	2 x 1	2
Paperless 주일예배	주보 재활용	2 x 1	2

교육 (50 points)

Activity	Event	Point x Count	Total
VBS (여름성경학교)	Earth Care Theme	4 x 1	4
환경에 관한 초청강사	Eco-Seminar - Oct 16, 2011	4 x 2	8
환경에 관한 Youth Projects	어린이 책 바꿔보기 (책 재활용) - May 2012	4 x 1	4
환경에 관한 Bulletin Board	“한울다리” - Dec 2011	4 x 1	4
당회서기	정의 / 평화 / 환경위원회 Bulletin Board	6 x 2	12
Earth Care Art Work	Announcement	2 x 1	2
환경에 관한 교회 Web	http://jpecksb.wordpress.com http://www.kcboston.org	4 x 2	8
환경에 관한 Art Display or Exhibits	Brookline Climate Week, Jan 2012 Exhibit “Environmental Intelligence”	4 x 1	4

시설 (47 points)

Activity	Event	Point x Count	Total
Programmable HVAC system	About half	3	3
Zoned HVAC system	About half	3	3
Efficient light bulbs (CFL, LED)	About half	5	5
Restrooms with motion sensors on lights	Some	2	2
Classrooms with motion sensors on lights	Some	3	3
Signs to turn off lights when you leave the room	Most	4	4
종이 재활용	Most	4	4
재활용된 종이 구입	About half	3	3
양면복사	About half	3	3
Glass & Plastics 재활용	Most	4	4
식탁보 재활용	About half	3	3
접시 재활용	Some	1	1
Flatware 재활용	Some	1	1
Less toxin used in Kitchen (i.e. Vinegar, baking soda, salt, borax)	Some	1	1
Chemical fertilizer used on church grounds	About half	3	3
Use of chemical pesticides used around church	About half	3	3

Outreach (50 poi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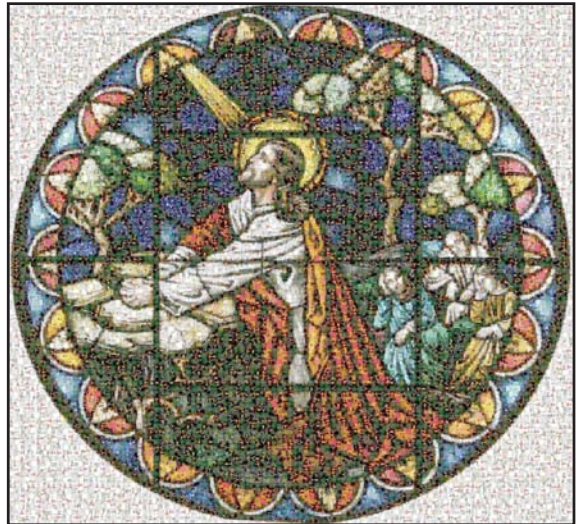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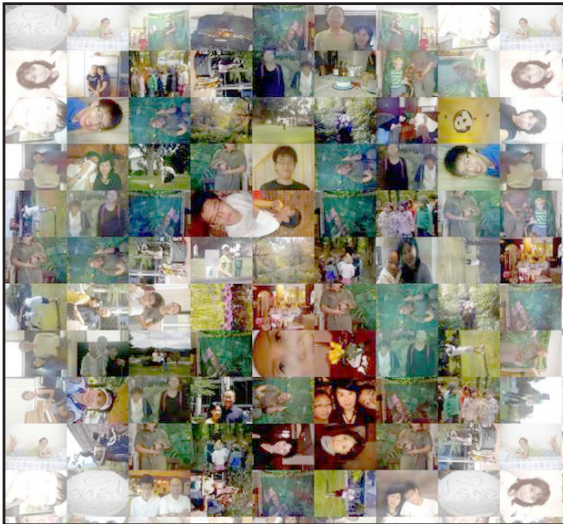
Activity	Event	Point x Count	Total
Camping trips, nature walks or outings in which your church has participated	시내산 동우회 산행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JasonKimSR	4 x 7	28
Educate congregation with earth care materials from the Presbyterian Church Washington Office through email, web site, or action alerts	Jpeckcb.wordpress.com- posting	4 x 2	8
Collaborate with other ecumenical or secular groups focused on earth care (Climate Change Action Brookline - CCAB)	Eco-Seminar & ECC, Oct 2011	5 x 1	5
Our church is a group member of Presbyterians for Earth Care			5

이 지면을 빌어 수고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수고해서 여기까지 온것은 좋은데 참 많은 의문점이 생깁니다. "ECC Certification을 받아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과연 우리의 이러한 수고가 자연을 보호하는데,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수 있을까?" 저 역시 지난 2월부터 정평환에서 섬기면서도, 이러한 의문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우리교회의 상징인, Stained Glass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 사진입니다. 왼쪽 사진은 100장의 사진으로 Stained Glass를 모자이크 한 것이고, 오른쪽 사진은 5000장의 사진을 이용하여

모자이크 한 것입니다 (이 모자이크 아이디어는 박신영 장로님으로부터 빌려왔음을 밝힙니다). 의심날때마다 저는 이 모자이크를 생각합니다. 우리 개개인은 참 연약하고 능력이 없으나,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같이 행동한다면, 아래의 오른쪽 사진과 같이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수 있다는것을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될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 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권사회

회장 조순래 권사

지난 달 9월 저희 권사회에서는 두가지 큰 겹경사가 있었습니다. 우선 9월 16일 제직안수 및 임직식에서 공경희 권사님과 심기선, 전신애집사님의 권사 취임 및 시무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세분 권사님들의 취임 및 임직을 축하드립니다. 전신애 권사님이 임직 축하에 대한 답사를 해 주셨고, 심기선 권사님은 병가료 중이어서 참석은 못하셨습니다. 공경희 권사님은 10년전 한국 교회에서 이미 권사 직분을 갖고 봉사하셨고 이번에 우리 교회의 시무 권사로 임직되었습니다.

이번 10월 14일 두째 주일 1부 예배후에 새로 임직 받으신 권사님 환영회를 간단히 갖고, 이어서 가료 중에 있는 심기선 권사님의 건강회복을 위한 기도회를 가지려 합니다.

9월 16일 오후에는 신좌경 권사님의 백수축하연이 Needham Sheraton Hotel에서 열려 300여명의 하객이 참여한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영길 목사님께서 축하 예배를 인도하셨고, 많은 교인들이 참여 축하를 드렸으며, 특별히 찬양대, 권사회에서도 특별프로그램을 준비하여 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저희 권사회에서는 조그마한 백수기념패를 증정했습니다. 신권사님의 백수연은 보스톤 한인사회의 경사로서 지역 신문마다 톱 기사로 보도 되었습니다. 신권사님은 2001년 미수 (88세)때에 자서전 "내가 살아온 길" 이란 책을 집필 발간 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오신 신권사님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한국가요의 밤-2 (10/20)>

최근 세계 곳곳에서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Psy 의 ‘강남스타일’ 로 그 어느 때보다 한국가요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요즘, 저희 교회 국내선교위원회에서는 오는 20일 토요일 저녁 7시 부터 지난해에 이어 “한국가요의 밤-2 : 종로에서 강남까지” 를 열고 지역 한인들에게 한국가요의 밤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가요 문화는 한 민족 특유의 “한” 이 담겨 있으면서 지난 수 십년간 다양한 서구 문화와 범 아시아 권의 영향이 고루 흡수 소화 되어 이제 ‘K POP’ 이라는 하나의 장르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 이번 행사에서는 중장년층을 위한 트롯트, 70-80년대의 명곡들과 함께 젊은 세대들이 즐길 수 있는 최근의 곡들까지 다양한 곡들이 준비되어 고국에 대한 추억과 아울러 한국 문화의 자긍심을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민족 특유의 정서가 담겨있는 가요를 통해 옛 추억을 되살리고, 세대가 어루러 질 수 있는 즐거운 음악의 밤을 지역 한인들, 그리고 Brookline 주민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바램에서 집사회와 함께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한국의 정서: 사랑” 을 주제로, 한국에서 가수활동을 하였던 김광민 (그룹 “라이너스”), 박천우 (듀오 “소리사냥”), 그 외 음악인들과 노래에 소질이 있는 교민들이 Berklee 음대 음악인들이 구성한 밴드와 어우러져 70-80 년 심수봉, 세

시봉 부터 조용필, 이문세, 김동률, 이소라, 부활, 또 K-Pop과 Psy를 망라하는 주옥 같은 곡 들을 트롯트에서 록, 발라드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선보일 예정입니다.

국내선교위원회에서는 outreach program의 일환으로 이번 공연 외에도 매월 교회 내의 ECC (Education, Community Center)에서 ‘Oasis Cafe’ 라는 이름으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클래식, 재즈, 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 공연을 무료로 열어 오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도 Oasis Cafe Music Night의 일환으로 열립니다. 연주회 모습들과 자세한 정보는 www.ecckcb.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일시: 10월 20일 토요일 저녁 7시

장소: 보스톤 한인 교회 ECC chapel

<탈북자를 돕기 위한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11/3)>

미국내에서 탈북자들을 돕고 있는 기관인 LINK (Liberty in North Korea)가 현재, SHIFT campaign을 벌이며, 북한 탈출자들의 실상을 알리고 있습니다. 11월 3일(토) 오후 7시에는 저희 교회에서 한국 교민들과 부르클라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Documentary film (The People’s Crisis)를 선보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Oasis Cafe Music Night(11/10)>

부르클라인 지역 주민을 섬기시 위한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Oasis Cafe Music Night가 11월 10일 (토) 오후7시에 열립니다. Guest musician으로는 Haffner Sinfonietta의 chamber music연주가 있습니다.

<Brookline First Light Festival (11/29)>

매년 Brookline 지역에서 Holiday Season 을 시작으로 열리는 “First Light Festival” 이 11월 29일 (목)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열립니다. 저희 교회는 국내선교위원회 주관으로 이 Festival에 참여하여, 한국 문화의 전통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늘소리’ 사물놀이팀의 연주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보스톤 한인교회 60주년 기념 역사편찬 위원회에서는 2013년 10월까지 60주년 기념 역사집을 출판하는 것을 목표로 역사편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팀별로 그동안 모은 자료를 읽고 정리하여 초고를 작성하는 일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창립 초기의 사진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60주년 행사위원회와 함께 보스톤 한인교회 초기 40년 사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한 역사적인 자료와 사진을 수집하기 위해서 옛교우 분들께 연락드리고 있으며, 교회내외의 여러분들에게서 자료수집을 위해 인터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0년간의 역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다시 발견하고, 아름다운 우리교회의 이야기를 기록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A. 편찬위원회 구성

- 마태팀 - 김정선, 지훈, 김계숙, 김화옥
- 마가팀 - 박신영, 최정열A, 박기춘
- 누가팀 - 김문소, 최준영, 최정열B, 이태호
- 요한팀 - 안성완, 김하나, 이혜승, 최연일
- 베드로팀 (Multimedia) - 한승희,
- 안드레팀 (Design) - 미정
- Volunteer - 신소정, 신선희, 김동숙, 남궁원
- 고문 - 백린, 신영각, 김성빈, 조준호, 윤경문
- 협조 - 60주년 행사위원장 김영범

B. 활동

1. 격주로 정기 팀장회의: 매달 2번 월요일 저녁 8:30분 Skype 미팅을 하고있습니다.
2. 옛 교역자 인터뷰 - 7/8 (주일), 오후 1시 30분 - 4시에Parlor에서 김갑동 목사님을 모시고 성장 배경 등 개인의 신앙역사, 목회활동, 교회생활과 당시 사건들에 대한 회고 등에 관해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 초기 사진전을 위한 Review 모임 - 8/12 (주일), 오후 1시 40분에 Room 101에서 그 동안 모은 사진을 통해 사진으로 보는 보스톤 한인교회 60년 자료를 검토하여, 사진속의 인물들과 내용을 토의했습니다..

4. 옛교우 인터뷰 - 8/25 (토, 오후 6시), Pilgrim Pine수양관 채플 1층 미팅홀에서 한승희 장로/김경애 권사, 김문소 장로/김계숙 권사, 최연일 장로/최송자 권사, 조준호 장로/김하나 집사를 모시고1971 - 1978년 기간중에 있었던 교회사정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5. 각팀별 역사 초고 일독회 - 9월 29일 (토) 토요일 아침기도회 참석후 오전9시 30분부터 역사편찬 위원회 전체모임을 가지고, 각팀에서 정리한 초기 역사 초고를 함께 읽고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차적으로 1953 - 1994년까지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6. 보스톤 한인교회 창립 초기사진전: 60주년 행사위원회와의 협의하에 보스톤 한인교회 사진전을 일차로 초기 40년을 조명할 계획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옛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감사드리는 전시회가 될수 있도록, 오는 창립 59주년을 기해서 사진전을 할 수 있게 준비중에 있습니다.

7. 추가 인터뷰 및 자료수집계획: 이영길 목사, 정경조 목사, 변화경 장로, 김현 장로 등 교역자들과 옛교우를 대상으로 추가 인터뷰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 이일영 장로, 김장환/이양자 교수, 아틀란타의 정소영 교수, 뉴욕의 추교회교수등께 연락드려 사진과 자료를 계속 수집중에 있습니다.

쉐마의 밤

9월 쉐마의 밤이 26일(토) ECC 채플에서 열렸습니다. 쉐마 찬양단의 인도로, 3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은혜롭게 찬양을 드린 후, 유년.초등주일학교의 귀여운 어린이들이 나와서 성경귀절 암송을 하였습니다. 특별 순서로는 지난 8월 가졌던 전교인 여름 수양회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동영상으로 만들어진 슬라이드쇼 (제작: 유승오, 김상기 집사)를 감상하였는데, 여름 수양회때 느꼈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슬라이드쇼의 마지막 부분에는 수양회 순서때 있었던 각 조별들의 재미있는 skit 장면들을 비디오로 담아주셔서, 다시 한번 수양회 기간때 가졌던 기쁨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말씀은 니카라과 선교사이신 전구 목사님께서 전하여 주셨는데, 목사님 가정의 이야기를 통하여 은혜와 감동이 있는 메시지를 통해 참석한 분들이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어, 가족과 이웃, 그리고 환자 교우님들과 니카라과 선교를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린후 “사철의 봄 바람 불어 있고” 란 찬송을 부르고, 이영길 목사님의 축도로 마쳤습니다. 쉐마의 밤을 위하여,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여 주신 마리아 여선교회 집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1. 성례식
유아세례자: 김야긴 (김태우/하자영 교우댁), 김주아 (김상기/한혜성 집사댁), 오유태 (오형석/박해인 교우댁), 장 준 (장영준/박지혜 교우댁), 정세인 (정하균/곽서영 집사댁), 허윤우 (허보석/조명희 교우댁) 채희준, 채희진 (채진병/최수경 집사댁)
성인 세례자: 문현석, 이운송, 장숙경, 정민수

- 2. 활동 교인 되신 분
7월: 김태우/김자영, 김태훈, 나해서/김지희, 박요섭/박진경
8월: 주남석/이수현, 송진우/김진영, 박노순/김미리

- 3. 출생
정광근/이동화 집사댁 (정민우, 8./13)\ 김민준/이현주 집사댁 (이준, Jonathan, 9/11) 사공현일/박정은 집사댁 (Olivia, 유니아, 10/4)
- 4. 전출 (7-8월)
김시찬/김정선 (한국), 허보석/조명희 (San Francisco) 김우진/배한원 (Texas) 김미송 (한국)
- 5. 전교인 여름 수양회
지난, 8월 24-26일간 Pilgrim Pine (NH) 에서 강사 박광래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자로 바로 서라”란 주제를 가지고 여름 수양회를 가졌습니다 (소주제: “하나님께 붙들 리는 사람이 되라”, “관상기도 소개와 실습”, “돌이키는 것의 괴로움과 즐거움”, “이제는 돌아서라”,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총 146명의 교우님이 숙박하셨으며, 2박 3일간의 은혜로운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내년도 수양회는 2013년 8/16-18일에 가질 예정입니다.

상록회

회장 주정대 집사

<백수잔치에의 초대>
올해로 창립 59주년을 맞는 보스톤한인교회가 100살 생일 축하잔치를 치른것이 물론 처음이다. 신좌경 권사님의 백수(白首) 생일잔치는 지난 9월 16일 일요일 니담 소재 웨라톤호텔 도브홀에서 300여명의 축하객과 자녀손들이 모여, 이영길 목사님의 설교로 시작해서 신권사님이 이땅에 오신 날을 마음을 풀어 축하했었다. 2남4녀를 통해 11손과 11 증손들이 할머니, 증조할머니를 마음껏 축하했고, 이학렬 노인회장을 비롯해 축하들이 쏟아졌었다. 신좌경 권사님의 백수는 36세에 사랑하는 남편 이기인씨와 강제이별 - 6.25 동란으로 - 하는 아픔을 안고 나머지 63년을 남편 뉘를 한(恨)으로 수놓으며 살아 온 고난의 일생! 이 한 평생을 예수님과 동행해 오신 믿음의 어머니였다. 이 믿음의 어머니께서 보스톤한인교회 상록회에 계시므로 교회 상록회원들이 자랑스럽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잡이로 섬기고 감사한다.
상록(常綠)이란 ‘늘 푸르다’는 뜻이지만 상(常)자에 붙어있는 ‘수건(巾)’은 ‘주 예수님’의 ‘실천적 사랑’의 명령이 담겨있어 나이가 들어 갈수록 ‘주님과 함께’가 더 굳혀 간다. 요한복음 13장은

은혜스럽게도 바로 이 ‘수건’의 역할, 아니 늙은이들의 상록회 기능을 예수님이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신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수건을 허리에 차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Unless I wash you, you have no part with me.(요 13:8)’ 상록회의 상(常)자에 매달린 ‘수건(巾)’이 우리 주 예수님과 직접 연관을 맺고 있으니 상록회원이 된 것이 이렇게 뿌듯하고 ‘매일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내가 주(主)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Now that I, your Lord and teacher, have washed your feet, you also should wash one another’s feet. (요 13:14)’ 상록회원이 수건을 차고 다녀야 주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 할 수 있다는 말씀이다. 하여 백수잔치에서 초대받은 상록회원들이 ‘지금까지 지내온것 (찬송 460장)’ 찬송가로 백수의 신좌경 권사님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찬송해 드렸다. 가슴벅찬 기쁨으로...

집사회

회장 김동규 집사

<전교인 수양회>

지난 8월 24일에서 26일까지 전교인 여름 수양회를 은혜 가운데, 뉴햄프셔의 필그림 파인수양관에서 가졌습니다. 150여명의 교인들이 참석한 이번 수양회는 박광래 목사님을 모시고 출애굽기 24:12 말씀을 가지고 “예배자로 바로 서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호수를 둘러싼 아름다운 풍경, 3세대가 함께 모여 나눈 담소, 뜨거운 찬양과 기도...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자로 바로 서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던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수양회는 40여명의 중고등부 학생들이 참가해 함께 방을 쓰고, 종일 찬양과 기도를 하면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다짐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해마다 웃음바다, 채치바다로 기대를 모아온 조별 발표에서는 별다른 소품없이도 즉석에서 만든 대본과 조별로 모여 준비한 춤, 찬양, 코메디로 수양관을 흥겨움으로 다시한번 채웠습니다.

특히 이번 수양회를 위해 등록, 찬양 인도, 주일학교 운영, 공동체 훈련, 간식준비, 물품운반 등 곳곳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섬겨주신 많은 집사님들과 교우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일하면서 이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게 되고, 섬김의 기쁨과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집사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인체육대회>

8월에 약천후로 취소되었던 뉴잉글랜드 한인체육대회가 지난 9월 22일에 개최되었습니다. 개학한 이후로 교회별로 소규모 인원이 참석했지만, 오랫동안 함께 모여 경기를 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남선교회 여러분들이 참석하여 3위의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경기 후에는 집사회에서 준비한 점심을 즐기며 어린 시절 ‘가을 운동회’의 추억을 새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내산 동우회



10월 6일 토요일에 NH Mt. Major 산행과 산행후 Ellacoya State Park에서 BBQ Picnic을 가졌습니다. 일기예보에 60% 비가 온다고 했는데도 예정대로 진행, 정말 피크닉이 끝날 즈음에 조금의 비를 만났습니다. 참가하신 새교우 여러분들을 다시한번 환영합니다.

가을 색깔들의 잎파리, 나무, 숲, 개울이 너무 예뻐

고, 산길에서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PC(USA) Earth Care Congregation (ECC) 으로 정식 Certified된것을 자축하는 피크닉을 Lake Winnepesaukee 모래사장이 있는 Ellacoya State Park에서 가졌습니다. 불고기, 돼지불고기, 핫도그, 오징어 야채구이, 상추쌈, 오이, 깻잎, 장아찌, 김치, 물론 하얀 밥하고, 식사후에는 과일, 뜨거운 커피, 티, 핫초코, 마시멜로우, ... 뭐가 빠진것 같은데.. 입속에 아직도 군침이.. 바베크 냄새와 함께..

준비해주신 진행팀의 수고를 다시한번 감사드리고, 고기 구우신 선발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 달에는 11월 첫 토요일 3일에 갑니다.

알림

1. 지난 9월 노회로부터 The Reverend Dr. Martin D. Kneeland Trust에서 수여하는 Kneeland award를 저희 교회가 받았습니다. 보스톤 노회 중작년도에 활동교인의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교회에 주는 award 입니다.

2. 2부 예배시간의 찬양대 지휘자로 수고하시는 변화경 장로님이 결혼 38주년을 기념하며 부군이신 Russell Sherman, pianist와 연주회를 갖습니다.
Date: October 28, 2012 - 8:00:PM
Price: Free
Location: NEC' s Jordan Hall

지난 석달을 돌이켜보며 에스터여선교회에서 참여한 두가지 교회행사 (전교인 여름 수양회와 제직임직식 비빔밥 준비)에 대해 기억해봅니다.

더위가 유난히 일찍 시작하고 기승을 부렸던 이번 여름의 끝무렵, 많은 교인들이 전교인수양회로 떠났습니다. 아스팔트와 뽀뽀한 콘크리트 건물들이 품어내는 열기를 잠깐 뒤로 하고, 호수와 숲이 옆에 있으니 우리의 영혼이 숨이 트이며 하나님에게 한발짝 다가가는 전교인의 나들이였습니다. 수양회 준비위원들의 면밀한 계획아래 식구들의 간식을 준비하는 엄마의 역할이 에스터여선교회의 몫이었습니다.

식사 외로 라면 삼백개? 이많은 양을 어찌 다 소화해낼까란 의문과 함께 엄청난 양의 물과 수박, 라면박스를 챙겨 수양회로 갔습니다. 2박 3일의 intensive 영적양식에 우리의 영혼이 살찌는 소리가 숲속의 귀뚜라미 소리를 압도했고, 매번 바뀌는 메뉴와 신선한 과일과 디저트는 우리영혼에 절실한 vitamin을 재충전

해 주었습니다. 평소에 서먹하던 교우와 식사를 함께 나누며 웃고 이야기꽃을 피우다 보니 소화가 다 되어 버린듯 합니다. 마지막날 밤, 다음날의 조별대항을 앞두고 조원들은 머리를 맞대고 아이디어를 내기에 바쁩니다. 어떤 조는 벌써 준비완료라는 제보가 들리는데,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우리조, 지치고 허기진 우리조는 “우리 라면이나 먹읍시다”란 제안을 마다치 못합니다. 준비 못한 초조함과 압박감 가운데서도 함께 나눈 그 매운 라면은 어찌 그리 맛이 있던지요. 지금 생각해도 수양회의 맛은 맵고도 달콤했습니다.

9월 23일은 제직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이 날은 이번 일년동안 새로 임직하신 제직분들과 또 재임직되신 제직분들을 축하하는 날, 에스터 여선교회에서는 전교인들의 비빔밥을 나누는 자리를 준비합니다. 올해도 각 구역에서 재료를 정성껏 준비해주시고 또 당일 500여명의 비빔밥을 양과 시간이 딱맞게 준비시켜주신 여선교회 여러분과 마리아 언니들께 감사드립니다.

마리아 여선교회



The 2012 Churchwide Gathering of PW “River of Hope” : 매 3년 마다 열리는 미국장로교 여성총회가 Orlando, Florida에서 7월 18일(수) 부터 22일(일)까지 4박 5일간 열렸다. 본 교단에 소속된 PW (Presbyterian Women)들이 세계 각처에서 모이는 대형 집회로, 약 2,000명의 여선교회원들이 참가하였습니다. 특히 약 30여명의 한인여선교회원들이

각 지역에서 참석하여 돈독한 친교와 하나님 안에서 한 자매임을 경험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고, 본교회에서는 김경애 권사/한승희 장로님, 김한나 집사가 참가하여 기독교 여성으로서 마땅히 해야할 사회정의, 평화구현, 실천 등 유익하고 다채로운 은혜로운 시간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한미 동북대회 여선교회 연합 선교대회: 10월 13일, Queens에 소재한 뉴욕한인중앙교회에서 가졌습니다. 지난 22년동안 청소년들의 삶의 가치와 질의 변화를 위해, 특별히 불우한 청소년들이 자신의 존재가치를 회복하고 의미있는 삶을 살아갈수 있도록, 온 삶으로 헌신하시는 ‘Youth & Family Focus’의 사역자이신 이상숙 전도사님을 모시고 사역의 경험과 깨달음을 바탕으로한 간증과 선교보고를 들었습니다. 또한 연합회 임원진들의 단기 선교 다녀온 경험을 함께 나누며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마지막 사명을 다하기 까지 순종하기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루터기 청년 2부

회장 송민철 교우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 저희 그루터기 청년 2부는 허신영 목사님의 지도 아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더욱 알아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써 청년의 때에 필요한 것들을 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청년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매주 주일 2부 예배 후 성경공부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2012년 가을 학기에는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하며, 믿음의 선배들이 행한 말자취를 배우고, 청년 2부 지체들 서로의 삶을 나누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지 함께 고민하며,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그루터기 청년 2부는 올해 9월 23일 정기 총회를 통해 2012-13년도 새 임원진을 선출하였습니다. 회장에 송민철 형제, 부회장에 지민형 형제, 그리고 총무에 안원미 자매가 임명되었습니다.

2012년 11월 22일에는 제 3회 “Psalm Night” 행사를 주최할 예정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 한 해 동안의 서

로의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고, 기쁨과 사랑을 더욱 더 풍성히 나누고자 합니다. 연말에는 청년 2부 Christmas Lock-in을 통해 청년 2부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교제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매주 저희 청년 2부를 위해 점심 식사를 준비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도우시는 손길과 베푸시는 마음 덕분에 저희 청년 2부가 교회에서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고, 더욱 풍성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루터기 청년 2부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으로 더욱 성장해 나가며, 보스턴 한인 교회와 나아가 보스턴 지역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힘쓸 것입니다. 저희 청년 2부를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좋은 일들은 권면하고, 힘든 일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나쁜 길로 나아가려 한다면 경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루터기 청년 2부 안에서 신앙의 뿌리가 더욱 깊어질 수 있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요. 감사합니다.

Ransom 중고등부

황동준 집사

어느덧 즐거웠던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이번 여름동안 중고등부는 ‘열정’으로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냈습니다. 중고등부 찬양팀은 찬양 리더가 없는동안 학생들끼리 연습하면서 찬양인도를 시작하였고, 학생 대표들은 각반을 섬기며 수련회와 오픈하우스 진행을 맞고, 선생님들은 학생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기도의 시간을 갖으며, 전도사님은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여 6학년으로 들어온 학생들을 반겨주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중고등부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이번 7월에는 Six Flag trip을 선생님들 5명과 학생 18명이 다녀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걱정을 했지만, 학생들이 너무나 재미있게 놀아 시간이 가는줄 모르게 놀았습니다. 교회에 돌아와서는 학부형회에서 저녁 support를 해 주셔서 배부르게 먹고 보람된 하루를 보냈습니다.

8월에는 전교인 수양회와 함께 중고등부도 따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뉴욕교회에 계시는 David Song 전도사님께서 “Believers Stand Firm”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번 찬양팀은 정한진 전도사님이 인도하셨고 청년 1부를 섬기는 심세희, 강유현, 그리고 작년부터 중고등부를 졸업한 김다윗 학생들이 수고해 주었고, 여러 청년부 학생들도 함께 참여하여 좋은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선생님들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졌고, 주님을 몰랐던 학생들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또 주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학생들은 주님이 언제나 자신곁에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토요일밤에는 기도의 시간으로 서로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기도드렸습니다.



9월에는 새로 들어온 6학년학생을 위해 open house를 준비했습니다. Sunflower에서 만형 또는 큰언니로 있다가 중고등부에 들어와 막내가 된 6학년 학생들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적응할수 있도록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쉽게도 6학년 학생들중 3명만 참가하였지만 앞으로 매달 있을 중고등부 행사를 통해 6학년 학생들이 중고등부에 잘 적응할수 있도록, 6학년 부모님들께서 학생들이 행사에 참석하도록 응원해 주시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30일에는 중고등부 PTA 미팅이 있었고, 중고등부 소개와 선생님들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년부터 PTA 회장으로 수고해주시신 노윤경 집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1년간 수고해 주실 김영순 집사님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번 10월 21일 주일 예배후, 오후 1시 30분에 중고등부 picnic을 Larz Anderson Park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친구들, 그리고 재미있는 게임들을 준비할 예정이고, 또 떠나기전에 자연을 보호하고자 trash pickup activity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11월 16일 금요일 저녁에는 매년 Arise 주최로 보스턴에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열리는 찬양의 밤이 있습니다. 그다음 토요일 아침에는 Flag Football 대회가 있습니다. 그날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부모님들은 교회에 오전 7시까지 모여 함께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12월 8일 토요일에는 중고등부가 주최하는 제2회 커피하우스 탈렌트 쇼가 있습니다. 작년에 아주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이번에는 더 많은 탈렌트를 가진 학생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많은 참여와 도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선생님들은 항상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성심껏 가르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자녀들을 위해 많이 기도 해주시고, 또 중고등부를 맡고있는 정한진 전도사님을 위해,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Sunflower Sunday School

박선희 집사



Jesus makes a difference everyday
 You turn me inside out and upside down
 You show me how to turn everything around
 You change my life. You' re all I need inside out
 and upside down on main street

기억 하시니까? 지난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여름 성경 학교 기간 동안 본당에서 울려 퍼졌던 주님을 향한 아이들의 힘찬 찬양이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도 불구하고 하고 참석 하여 준 80여명의 아이들, 50 여명의 선생님과 자원 봉사자들 그리고 뒤에서 수고하여 주신 PTA 회장님과 여러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7월 마지막 주일을 끝으로 그동안 1학년을 열심으로 섬기어 주시던 문지용 전도사님께서 학업으로 인하여 Atlanta 로 이주 하셨습니다. 2년여 남짓 한 기간 동안 주일 학교를 위하여 수고 하여 주신 문지용 전도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뒤이어 6월에 유년, 초등 주일 학교의 문을 두드려 주신 귀한 두 선생님 (정민수, 최윤정)께서 1학년을 맡아 주셨습니다

여름의 끝자락에 접어든 8월 한 달 동안 예쁜 해바라기들에게 소중한 주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전하여 주신 허신영 목사님, 강상철 장로님, 윤경문 목사님 그리고 이요한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8월 마지막 주일에는 “Everything is possible with God”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박진호 전도사님과 함께 뜻깊은 여름 수양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록 참석 인원은 많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주일 학교 아이들이 한뼘씩 더 영육간에 믿음이 성장 하였으리라 믿습니다

9월 첫째 주일은 서운함과 아쉬움 그리고 벽찬 기쁨이 함께하는 주일 이었습니다. 아장 아장 걸으며 엄마, 아빠 손을 붙잡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 한 아이들이 어느새 훌쩍 커 버려 주일 학교를 졸업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에 졸업한 15명의 5학년 아이들에게 아쉬운 가운데에서도 큰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항상 깃들기를 기도 합니다.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느라 설레었던 9월 둘째주일, 주일학교의 찬양팀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랜 시간 고운 목소리로 찬양을 이끌어 주셨던 김연희 선생님께서 떠나시고, Base 와 Drum을 연주 하시는 엄순호, 손유현 선생님께서 새로이 합류 하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많은 시간과 열정으로 주일 학교를 위하여 수고 하여 주신 김연희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 23 주일에는 주일학교를 이끄시는 박진호 전도사님을 포함한 19명의 선생님들이 보스턴한인교회 교인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2부 본당 예배 중에 가졌습니다. 한없는 사랑과 관심을 보여 주시는 모든 교인 여러분들께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도로 유년 초등 주일학교를 응원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초대 합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는 가운데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 선생님의 길에 동행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연락주십시오.

저희가 (박진호전도사, 진정원, 박선희 집사) 마중 나가겠습니다

새교우 환영반

저희 보스톤 한인교회에 오신 새교우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교우 환영반에서는 새교우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영길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는 3번의 교육 시간을 매달 갖고 있습니다.

8월 새교우 환영반 수료자는 강태민/박은영, 김경섭/주미옥, 황순연/박재미, 류선영 교수입니다.

강태민/강은영 부부는 슬하에 강유진(딸 6세)와 강지훈(아들 3세)의 두 자녀와 함께 지난 5월 강은영 교우의 학업을 위해 한국에서 보스톤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강태민 교우는 불교신자이시던 부모님 밑에서 초등학교 2학년 시절 친구를 통해 처음 접한 기독교 신앙과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받아 들이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족 모두 기독교에 귀의하게 되고 함께 신앙생활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박은영 교우는 MIT Sloan School에서 경영학석사(MBA) 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주미옥 부부는 슬하에 딸과 아들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2000년도 하와이로의 이주, 딸의 결혼(사위 이요한 목사), 2011년 보스톤으로 이주를 결심하면서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고 합니다. 주미옥 교수님은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교사와 지휘자로서 봉사하였고 지휘자 활동을 위해 별도로 지휘공부를 할 정도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욱 좁혀가는 계기를 갖으시며 감사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황순연/박재미 부부는 2011년 11월에 결혼한 신혼부부로서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면서 가족으로, 신앙인으로, 또한 공동체생활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황순연 교우는 결혼생활과 함께 그간 소홀했던 신앙생활 또한 깊이가 더 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박사학위를 마치고 피부암 분야에서 포스트 닥터(박사후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류선영 교우는 초등학교 시절 동네 언니의 권유로 대전의 한 장로교회에서 처음 하나님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대전성모병원에서 근무 중 1년 예정으로 MGH의 뉴로센터에서 연수중에 있습니다.

9월 새교우 환영반 수료자는 강인철/김진이, 김태범/박경희, 문형근/이지영, 안종일/김수정, 주정현/이선화 교수입니다.

강인철/김진이 부부는 슬하에 강유빈(딸 22)과 강세빈(딸 7)을 두고 있습니다. 강인철 교우는 현재 교수로 재직하던 중 안식년을 맞이하여 Dana Farber에서 연수중에 있습니다. 가족은 현재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교목실장의 추천으로 보스톤한인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김태범/박경희 부부는 슬하에 쌍둥이인 김준서(딸 7)과 김준식(아들 7)을 두고 있으며, 김태범 교우는 서울에서 내과를 개업 중 부인인 박경희 교우와 함께 브리검영 병원 연수 중에 있습니다. 박경희 교우는 평촌의 한림대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남편인 김태범 교우와 함께 연수를 목적으로 보스톤으로 이주하였습니다.

문형근/이지영 부부는 2011년 11월에 결혼한 신혼부부로서, 문형근 교우는 보스톤에서는 학업과 취업을 목적으로 장기적인 체류를 예정하고 있으며, 이지영 교우는 미국으로 20여년 전 가족과 함께 매릴랜드로 이주하였습니다.

안종일/김수정 부부는 2009년부터 로드아일랜드에서 학업(MBA)을 위해 거주하였으며 최근에는 안세빈(딸 12)와 함께 보스톤으로 이주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향후 2년 정도 보스톤에 체류 예정에 있습니다.

주정현/이선화 부부는 최근 보스톤으로 의료연수 목적으로 1년 간의 체류 예정으로 주하선(딸 10)과 주현철(아들 8)인 아이들과 함께 이주하였습니다. 주정현 교우는 순천가톨릭 병원 연수하고 있던 중 연수를 오게 되었습니다. 이선화교우는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로 인해 맺게된 하나님과의 인연이 보스톤에서의 신앙생활로 이어지는 기쁨과 놀라움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교우 환영반 교육을 마친 후에는 음식을 나누며 서로 교제 할 수 있도록 저녁 만찬을 갖는데 이번 새교우 환영만찬은 김정선 장로님/조순래 권사님댁에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서로 친교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갖게 해주신 김정선 장로님/권사님가정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새교우 환영만찬에서는 옛 친구이셨던 조순래 권사님과 주미옥 교수님이 몇십년만에 우연히 새교우 환영만찬을 통해 서로를 알아보고 감격의 재회를 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은혜로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 KCB 갤러리 나누고 싶은 모습들 ○



6월 세례자



International Bible Study Group



Columbia Mission Team



전교인 수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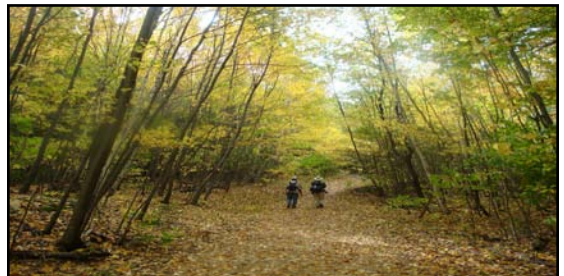
시내산 동우회 - World's End



서예반 동우회



Earth Care Congregation Certificate



시내산 산행길 / Mt. Major